2026.10.18.	연중 제 29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38번>	<폴더 13번>	<폴더 35번>	<폴더 45번>
하느님의 사람	마음을 드높이	내 맘에 오시는 주	태양의 찬가

본기도 (Collect) |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독서 | 이사야서 2,1-5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서 | 로마서 10,9-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8,16-20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9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12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복음>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스도인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신없이 달리는 단거리 선수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는 정복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며 선교사입니다. 희망을 품고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만 결연하게 걸어갑니다. 신뢰하면서도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창의적이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 나서며, 열린 마음을 지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갑시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였듯, 오늘날 우리의 복음 선포 장소도 세상의 길들입니다. 특히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올바른 성모 신심을 찾아서 -③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올바른 성모 신심 - Fr.양경모 대건안드레아

1963년 10월 29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던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언뜻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교회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 관한 가르침을 '독립된 문헌'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대신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 인류의 빛(Lumen Gentium)〉 안에 한 장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표결이었습니다.

표결 전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님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고, 결과는 〈교회 헌장〉 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1,114표, 독립적인 문헌으로 내자는 의견이 1,074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과 40표 차이로 성모님에 관한 내용은 '독립적인 문헌' 대신 〈교회 헌장〉 안에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아슬아슬한 투표 결과가 가톨릭 교회의 성모 신심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성모님에 관한 내용이 독립적인 문헌으로 나오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성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으로 인해 성모님의 특권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중개에 관한 내용을 따로 부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공의회 직전, 일부 주교님들은 성모님께 '공동 구속자'와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호칭을 교의로 선포해 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현재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 헌장〉의 하나의 장에 포함하자는 측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특권과 영광이 강조되면서 분리되었던 성모님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초기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모셔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택

가톨릭 교회의 올바른 성모 신심의 방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교회 헌장〉 제8장 제목에 잘 드러납니다.

성모님에 관한 독립적인 문헌이 무산된 것은 결코 성모님의 위치를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해질 수 있는 성모 신심에 제동을 걸고, 성모님을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자리에 모시려고 한 공의회 교부들의 신학적 결단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문제를 명확히 해결했습니다. 공의회는 마리아의 중개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온전히 의존하고 종속됨을 분명히 선언하며 오해를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모든 은총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에 공의회는 "어떠한 피조물도 강생하신 말씀 곧 구세주와 결코 똑같이 헤아려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힙니다(〈교회 헌장〉, 62항).

둘째, 은총 분배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부풀리던 태도에 맞서, 공의회는 마리아를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걷는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체'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형(typus)'으로 제시했습니다(〈교회 헌장〉, 53.63항).**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순명하신, **가장 완벽한 신앙의 모범**이심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헌장〉은 우리의 성모 신심이 빠지기 쉬운 두 절벽을 향해 이중 경고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거짓 과장(극대주의)'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축소주의)'을 모두 피하라는 것입니다(〈교회 헌장〉, 67항).**

성모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

공의회는 진정한 신심이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이처럼 참된 신앙에서 흘러나와 마리아의 탁월한 덕을 일상에서 본받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심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성모 신심에 관한 완벽한 이정표를 세웠고, 바오로 6세 성인 교황은 〈교회 헌장〉을 반포하던 날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이런 공의회의 결정이 이후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발전했는지 바오로 6세 성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의 문헌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온라인 모임 안내

- 10월 27일(화), 저녁 7시
- 11월 3일 (화), 저녁 7시
- 11월 10일 (화), 저녁 7시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갈라티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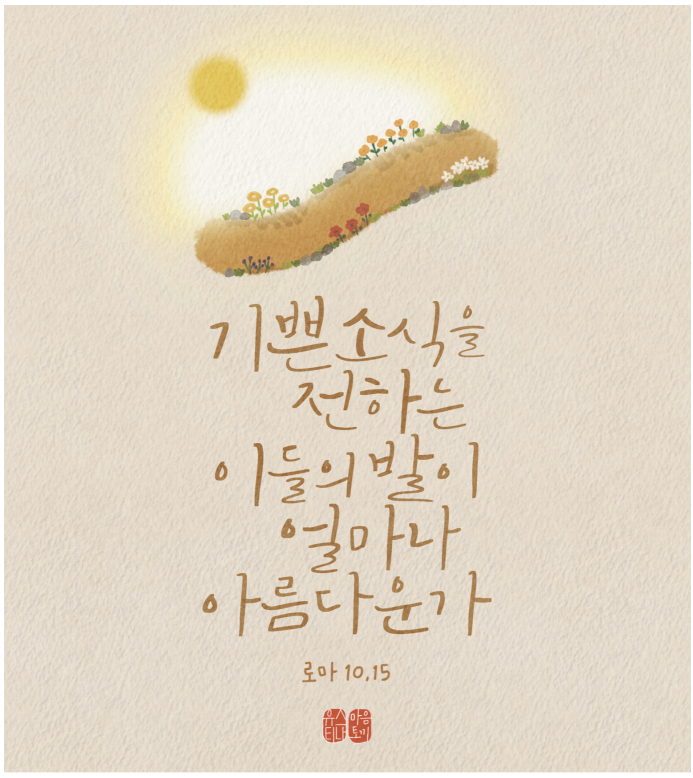
2. 간식 나눔 안내

다음주 주일 미사 후에는 교육관에서 간식나눔이 있습니다. 나눔봉사 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세례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다음주 주일에 세례를 받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신자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인숙, 신미란, 차진아, 이효령, 신정인
허린, 오성배, 양현희, 유아인, 서정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가득한 길' 박경희(유스티나) 作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10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안윤경 소화데레사 (10.01) - 박가연 소화데레사 (10.01)
- 김인국 프란치스코 (10.04) - 조휘원 프란치스코 (10.04)
- 남궁윤하 유스티나 (10.07) - 박주현 타대오 (10.28)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전체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 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10일 ~ 10월 16일)

봉헌금	$ 235			
교무금	$ 31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10월 공동체 실천 |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그리고 주모경 바치기